



오인회 소식

2018년 7월 (제82호)

권두언 (卷頭言)

명상을 하다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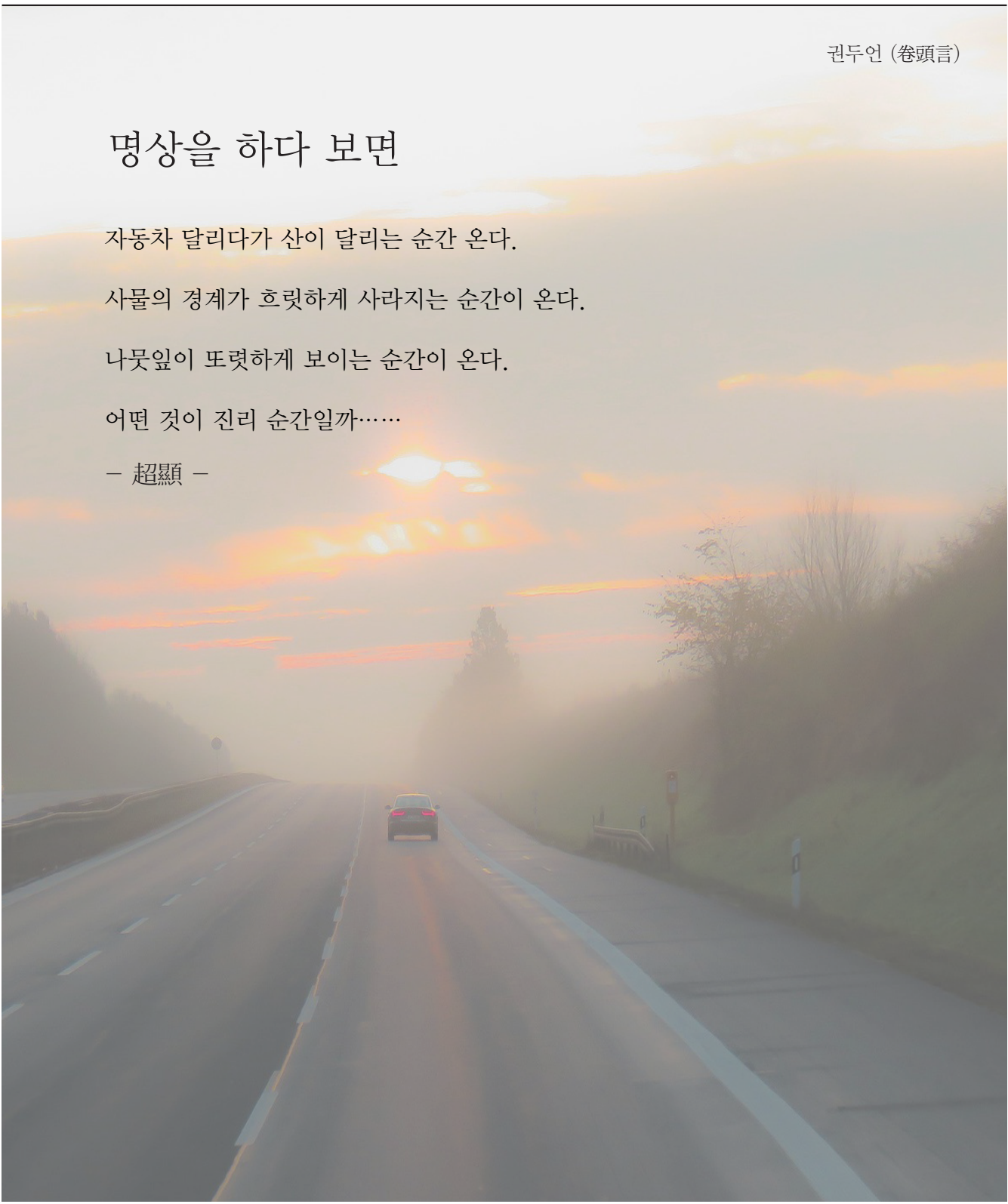
자동차 달리다가 산이 달리는 순간 온다.

사물의 경계가 흐릿하게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나뭇잎이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온다.

어떤 것이 진리 순간일까……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7월 2일 박순자 200만원 / 7월 9일 류창형 3만원 / 7월 10일 선호 1만원 / 7월 13일 권오인 10만원 /
7월 20일 여행 1만원 /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17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21, 솔내음17, 무유18, 고을19, 서원17, 여몽19, 원님19,
기보19, 썬이15, 허유17, 거위17)
- 기타 (가온20, 구당19, 자현19)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상 출판 완료, 中 출판비 : 450만원, 下 출판비 : 450만원 / 현재 후원액 4,673,102원
(상출판 이월금 215,451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님 50만원, 나무 30
만원, 고을 100만원,
원님 10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오직 '봄'만이 있다

두레박 인터뷰 1

두레박님은 SK에너지에 다니며 부족함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늘 진리에 목말라하였습니다. 미내사를 알게 된 것은 5,6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 깨어있기 프로그램은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어왔고, 깨어있기 기초과정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말이, “기초과정때 예고가 잠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화과정 가서는 선생님께 제가 한 표현대로 하면 ‘꼭지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화과정의 마지막 날 아침, 선생님이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화두로 탐구하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 화두를 잡고 산책을 하면서,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뒤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세계가 쪽 펼쳐지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니까 그냥 그대로 ‘봄’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심화과정 갈 때는 어떤 기대 없이 그냥 갔고 거기서 그 자리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마음의 한점 의혹이 탁 떨어지니까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드립니다”(편집자 주).

편집부: 우선 미내사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두레박: 미내사클럽은 한 4~5년 전에 인터넷 서핑 중에 소식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고, 깨어있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할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어요.

편: 그 과정을 조금더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두: 추구해온 것은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 물음을 가지고 예언기도에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면 퍼즐을 풀어라’라는 문구를 받았습시다. ‘퍼즐을 풀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퍼즐을 어떻게 풀까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질문을 해나가니 다가온 것은 ‘퍼즐은 풀다가 잘못되면 다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맞춰가면 되는거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영성훈련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모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스스로 찾아온 것이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편: 퍼즐을 풀라고 했을 때 그 말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나요?

두: 퍼즐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방법론을 찾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그 본래의 나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뀌며 이 부분을 혼자서 연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편: 혼자서 어떻게 될 연습했나요?

두: 제가 처음 영성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세계가 생각세계, 느낌세계, 사실세계, 진리세계 이렇게 구분되어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생각 떼고 느낌 떼고 그리고 나서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너머 진리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 진리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의자 빼고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서재의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변엔 서재의 벽이 있고 천정이 있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물음이 오지요. 오른 벽 치우고 왼 벽 치우고 천정 치우면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럼 아파트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전체 다 무너뜨리고 나면 너는 어디 있느냐? 원주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 다 무너뜨리면 어디 있느냐? 그럼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지구에 있습니다. 지구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그러면 달과

화성, 수성 그 사이에 있습니다. 태양계 없애고 어디에 있느냐? 은하계, 은하계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우주에 있습니다. 우주 다 없애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편: 우주 다 없애면 어디에 있다고 대답해요?

두: 어디 있다고 이야기 못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말이지요. 그것이 내적인 느낌으로 옵니다.

편: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험했나요?

두: 그동안은 이 몸이 나라는 것에 계속 매어져 있었고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몸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건강상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같이 있었을 때에는 몰랐는데 거기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나니까 그 과정에 대해 좀더 깊은 갈급함이 생겼어요. 목사님과 같이 있을 때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 물을 데가 없으니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답답함이 있었지요.

편: 그때는 무슨 공부를 다시 시작했나요?

두: 처음에는 빼고 빼는 과정 중에 제법 관심 있던 것은 진리세계 쪽이었어요. 스스로 빼는 연습을 통해서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공부했어요.

편: 그때 이후로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었나요?

두: 그때 이후로 제가 해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공의 세계'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 왜 그렇게 느꼈던 거죠?

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마음속에 미진함이 계속 있더군요.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으니 답답함도 있고, 이 다음에 또 뭘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어요. 그렇게 찾는 중에 깨어있기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와 닿지는 않았고 호기심으로 오게 되었어요.

편: 책을 봤을 때에는 크게 와 닿지 않았나요?

두: 네.

편: 그러면 깨어있기 기초 과정을 듣고 나서는 어땠나요?

두: 월인 선생님과 했던 침묵과 고요 연습을 통해 침묵이라는 것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고요'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지? 라는 흥미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지님이 전체주의를 알려주면서, 그동안 예고랑 딱 붙어 있었는데 예고가 사라진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편: 깨어있기 기초 과정을 통해 감지라는 것이 와 닿았나요?

두: 감지라는 것도 크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기초 때는 대충 감만 잡고 갔어요. 감지연습보다 기존에 제가 해왔던 공부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나라는 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몸의 느낌에서 의식까지 계속 느껴보는 연습을 했지요. 몸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편: 어떻게 파고 들어갔죠?

두: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의식적으로 온 몸을 스캔을 하며 들어갔고, 그 중간 중간에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주의를 주며 그렇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편: 그 과정을 통해 발견된 것은 있었나요?

두: 아니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편: 그런데 그 연습을 계속 한 이유가 있나요?

두: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연습하면서 진척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편: 지난번 선생님과 통화할 때에는 뭔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두: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월인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봄’과 잡히지 않는 ‘보여 지는 자’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잘 나가지 않더라고요.

편: 그 말이 와 닿진 않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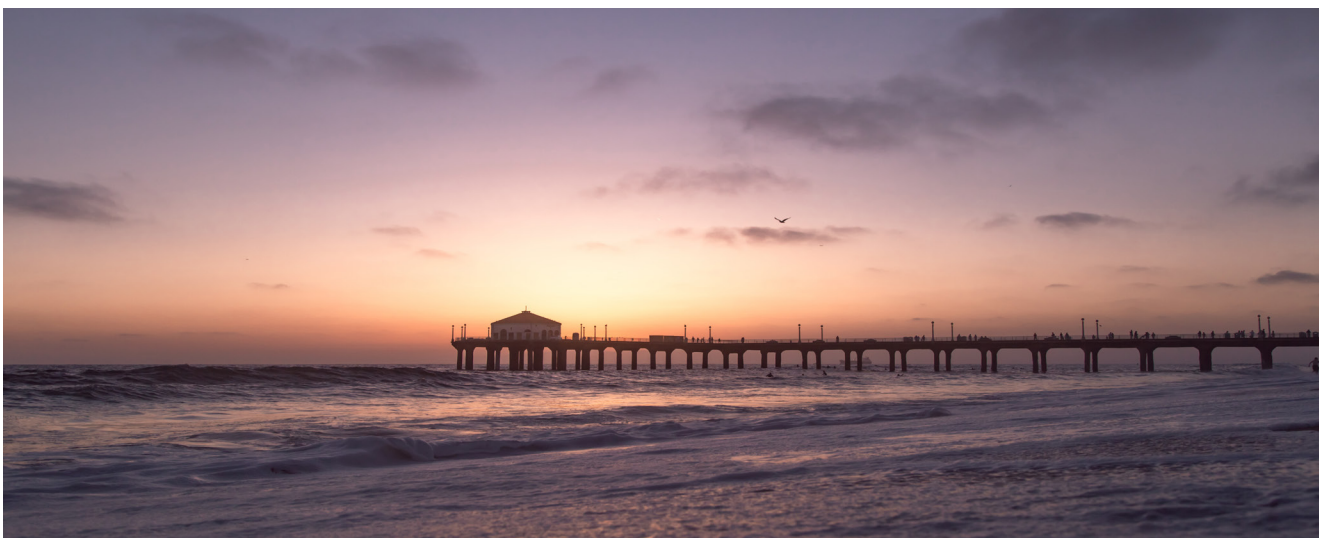
두: 네

편: 그 이후로 그러면 스캔만 하고 있어나요?

두: 네

편: 이번에 와선 어땠습니까?

두: 심화과정을 와서 처음 충격 받았던 것은 나라는 존재의 크기를 정하고 경계를 짓고 그 크기를 재어 보라 했을 때 나라는 것의 크기는 10에서 7센치 정도라는 것, 나라는 존재의 크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신념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지켜야 되는 신념에 대해 5가지를 적으면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신념들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을 안했어요. 작게 되겠다 싶었는데 이 신념의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인식하는 이 주변 전체의 크기로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와 닿은 것은 ‘나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적인 것들인데 이 느낌은 뭐랄까 크기가 주변 전체를 다 차지하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충격을 받았죠. 두 번째는 ‘있음’과 ‘주의에 주의 주기’였습니다. 처음 ‘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있음’상태로 산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라는 개별적인 느낌이 없이 그냥 ‘있음’만 있더라고요. 있음이 보고 있고 있음이 걷고 있고. 있음이 걷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으려나? ‘걷고 있음’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툭 떨어져 나가고....(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대승기신론(65) - 2013년 7월 23일 강의

월인 (越因)

二者已相應, 謂法身菩薩, 得無分別心, 與諸佛智用相應, 唯依法力自然修行, 熏習眞如滅無明故.
 이자이상응. 위법신보살, 득무분별심, 여제불지용상응, 유의법력자연수행, 혼습진여멸무명고.

둘째는 이상응(已相應)이니, 법신보살(法身菩薩)이 무분별심을 얻어 여러 부처의 지용(智用)과 더불어 상응하여 오직 법력에 의하여 저절로 수행하게 되어 진여를 혼습하여 무명을 멸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대상이 가상의 작용이고, 주체는 대상 때문에 생겨남을 파악한 사람이 법신보살(法身菩薩)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득하여 분별이 없는 마음을 얻은 거예요. 모든 분별의 기본은 주체와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불각삼상(不覺三相)과 경계육상(境界六相)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업식(業識)에서 주체와 대상이 생겨나는 전식(轉識)을 거쳐 대상들이 분별되는 현식(現識)이 이어집니다. 이런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까지가 불각삼상(不覺三相)입니다. 전식(轉識)이 확립되어 주체는 동일시의 기초로서 숨고, 온갖 대상들이 분별되지만 아직 좋고 나쁨은 들러붙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과 눈에 대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식(現識)입니다. 대상들이 하나하나 구분되는 것인데, 이런 분별은 지혜의 기반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움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면 바로 이어서 대상을 비교하는 호오(好惡)가 생겨나죠. 분별 때문에 호오(好惡)가 생겨나는 겁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하여 좋은 것을 끌어안아서 즐기려 하고 나쁜 것은 밀쳐내서 멀리하려고 하는 데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고락(苦樂)이 생겨나고 집착이 생겨나요. 이 집착이 생겨나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의식할 때는 벌써 호오(好惡)와 집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를 열심히 연습하는 겁니다. 감지에는 호오(好惡)가 없어요. 미묘한 밀침과 끌림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감지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흔적이니까요. 그래도 거의 호오(好惡)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분별심이 바로 감지상태입니다. 느낌으로써 이것과 저것을 미묘하게 구분해 내는 거죠. 생활의 달인들이 해내는 미세한 분별이 감지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좋고 나쁨이 끼어들면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괴로움의 기반이 되니까요. 행복만 추구하고 괴로움은 멀리하려는 사람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겁니다. 행복은 불행과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않음도 봅니다. 행복하지 않음이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행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옥도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것처럼, 불행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이란 매우 가변적이어서 기준이 바뀌면 언제든지 불행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흔히 지복(至福)이라고 말하죠. 행복한 이유는 언제든지 다른 이유로 대체 될 수 있고, 그 행복한 이유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은, 안경이 있으면 잘 보여서 행복하고 없으면 아직 눈이 쓸 만하다고 여기며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무분별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분별은 할 줄 알되 분별에 빠지지 않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거죠.

자아(自我)가 생겨났다는 건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애가 스스로를 '나'라고 말하지 못할 때는 아직 분별을 못하는 때입니다. 나와 너를 구별하기 시작하면 분별심을 얻어 자아가 생겨나는데, 이 자아(自我) 자체가 바로 분별심이죠. 청춘기의 반항은 자아를 강화시키고, 또 자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자아가 괴로움의 온상임을 깨닫고, 자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자아를 벗어난다는 건 자아를 넘어가는 의미입니다. 이걸 자아를 아직 터득하지 못한 상태나 자아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분별심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아를 경험하고 자아를 넘어 간 사람은 분별심을 사용하지만 분별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분별심(無分別心)을 무분별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별은 하되 분별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분별심(無分別心)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파악한 부처들이 지혜와 그 쓰임에 상응하여 법력(法力)에 의지해서 저절로 수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태극(太極)을 지난 사람들이예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나’가 허상임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탐구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진리의 힘인 법력(法力)에 의존해서 저절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리를 훈습하여 무명(無明)이 사라지는데, 무명이 사라지면 이미 우리는 거기 와 있는 겁니다.

동쪽을 향해 서 있으면서 그 방향을 서쪽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가 “서쪽은 언제 사라지지?”, “왜 이렇게 어두워?” 한다가나 새벽녘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저녁에 지는 해라고 여긴다면, 자신이 서쪽을 향해 서 있다는 생각이나 해가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는 이미 동쪽을 향해 서 있는 거죠. 원래 동쪽을 향해 서 있었는데, 서쪽이라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서쪽이라는 착각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본질 속에 있어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과 괴로움, 허무와 답답함이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자기의 본질이 그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느낌은 나에게 느껴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말을 잘 살펴보세요. ‘내 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지 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를 보면,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뜨거운 물건을 잠깐 들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잡게 되는 법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붙잡는 건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죠. 두려움이나 슬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나뉜 허상인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거나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또, 내 상태가 싫으면 싫을수록 그게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것도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지만 싫어하는 것도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항상 괴로움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분별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호오(好惡)가 붙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좋은 것이 오면 즐기고, 좋은 것이 지나가면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끝내세요. 그리고 괴로움이 오면 떨쳐버리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도 즐기세요. 싫어하면 괴로움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싫은 것을 멀리하려고 내 주의가 그것에 계속 쏟아지니 괴로움이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분별심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기본입니다.

무분별심(無分別心)을 언음이 본체(本體)를 발견한 것이고, 무분별심으로 자유자재하게 행동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쓰는 것이 바로 용(用)입니다. 그런 체용을 배우는 것이 체용(體用)의 훈습입니다.

무분별심은 나와 대상이 동시에 생겨남을 체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심(無心) 속에 들어가서 나와 대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의식 세계로 나오면 무분별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분별되는 이 상황을 철저히 믿게 됩니다. 분명히 무분별을 경험했는데 분별로 돌아오면 왜 다시 분별을 믿게 되는 걸까요? 무심(無心)의 경험을 믿지 않고 지금 눈에 들어오는 분별을 믿는 이유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는다면 그 습관을 즉각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믿음을 부인하고, 내가 믿는 사람과 진리를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일종의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에너지가 쏠리지 않고, 진리에 에너지가 뭉치게 되면 진리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빠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길은 자꾸 따지고 물어봐서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의 기반을 금강계 만들어 무너뜨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는 반면에 믿음의 길은 즉각적으로 도약해 버리죠. 그렇지만 광신이나 맹신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따르는 믿음이나 사람이 정말 진리인지 파악할 눈이 없다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양날의 칼입니다. 반면에 지혜의 길은 좀 안전하죠. 저 깊숙한 마음에 정말 진정한 진리를 찾겠다는 마음만 분명히 있다면 함정에 빠져도 금방 헤치고 나옵니다.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가지만, 우리의 저 깊은 직관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알아요. 진정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든 지혜의 길을 가든 직관적으로 함정을 잘 파악해 냅니다.

분별심은 나와 대상을 나누는 마음인데, 그것이 의식을 형성하고 마음이 작용하게 하는 기본 과정이란 걸 파악하면, 나와 대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무분별심을 체득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수행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무분별심을 얻는 다른 훌륭한 방법은 자재업(自在業)을 사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열심히 행동하지만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에너지가 안 납니다.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죠. 생명력이 자기의 이익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아무 이유 없이 정성을 기울이고, 전체를 위한 조화로운 일에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생명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무위(無爲)의 위(爲)’를 통해서 가는 길인 카르마 요가죠. 석가모니가 2500년 후에는 카르마 요가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중용에 ‘정성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다.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也)’라는 말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생명력 자체에 대한 터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생명력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놀았는데, 스무 살쯤 되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만 열심히 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상이 주어져야만 힘이 나서 노력하죠. 의미 없는 헛된 일에 인간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감옥에서 가장 힘든 벌칙이 흙구덩이를 파게하고, 그 일을 마치면 구덩이를 메우게 하고, 다시 파는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아(自我)는 헛되다고 여겨지는 일에 좌절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이 벌칙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애나 자아(自我)가 형성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넘어간 사람도 좌절하지 않아요. 오직 자아만이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만이 의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죽어갔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감옥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자했기 때문에 자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즉 모든 일에 의미를 두는 방법을 발견했지만, 자아를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생명력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생명이 맨 처음에 탄생했을 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생명력 자체가 아주 훌륭한 거죠. 이 세계의 수많은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게 생명의 힘입니다. 잡초는 좌절하지 않지만 나무는 좌절합니다. 나무 가지를 쳐내면 새 순이 나오는데, 그걸 또 쳐내기를 몇 번 반복하면 더 이상 새 순이 돋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잡초는 아무리 잘라내고 뽑아도 끊임없이 돌아옵니다. 원시적으로 갈수록 생명력이 더 강해요. 복잡한 고등 동물로 갈수록, 지성이 더 발달할수록 좌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미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려는 것은, 지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성이 전혀 없는 원생동물처럼 좌절하지 않는 생명력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거죠. 지성이 있다는 건 어떤 틀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멋대로 하지 않고 지혜로운 길로 분별해서 가는 건데,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틀에 아랑곳 않는 생명력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바로 평화속의 역동성이고 역동적인 평화입니다. 평화는 고요하고 조용한 건데, 역동적인 평화는 자기 에너지를 최대한 쓰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위(無爲)의 위(爲)입니다.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으면 그렇게 아주 세밀한 분별을 쓰면서도, 분별에 갇히지 않는데, 그게 바로 체용의 혼습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홀로스 공동체학교와 청년백일학교 소식

지난 7월 28~29일엔 지원님의 도움으로 여수에 가서 관성을 다루기 사전 모임겸 오인회 MT를 다녀왔습니다. 지원님이 요트 두 대와 모터보트 한 대를 내주셔서 30여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2시쯤 모여 3시부터 관성 다루기의 핵심인 텐세그리티 개념과, 느낌, 상(相), 스토리에 대해 짧은 강의와 대담이 있었고, 27일 저녁에는 요트를 타며 즐거운 밤바다를 누리고 왔습니다. 중간에 폭죽을 터트리며 불꽃놀이도 하고, 요트의 멋진 모습과 흔들림 속의 유연함을 경험하며 여수 해상공원을 구경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잠시 '움직이지 않음'에 기반한 '움직임'의 원활한 활동인 전자전달계, 감정의 움직임, 신체의 에너지 흐름, 마음의 기준에 기반한 의식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있었고, 한팀은 차를 마시며 영화를 보고, 한팀은 바다로 가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곧이어 있을 8월 11의 관성다루기 워크샵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래는 강의 개요입니다.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 사이매틱스 : 노드라 불리는 진동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모래 알갱이가 모인다. 즉, 진동이 없는 부위는 고정되고 머물고, 기준이 되며 현상화 하고, 진동이 있는 부위는 비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부단한 상황으로 가득차 있다.

. 물질육체 : 세포의 전자전달계를 살펴보면, 삶에서 머무는 곳은 변화없는 세포벽과 같다, 반면 삶의 상황은 끊임없는 변화가 무쌍하다

. 에너지 몸체 : 인체의 에너지 중심인 나디라 불리는 에너지가 머무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에너지 활동이 일어난다.

. 감정 몸체 : 고정된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상황이 오면 반응하며 움직임이 일어난다.

. 기질체 : 습관적인 자기 기질을 중심으로 자아가 작동하고 있다.

. 의식체 : 그런데 그 '나'와 '기질'이 바로 돛과 배와 같이 일종의 텐세그리티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상황의 바람이 돛을 팽팽하게 하면, 즉 상황과 목적을 향한 나의 의도가 만나 힘을 받으면 '나'의 부분에 특정한 '느낌'이 난다. 그 느낌 또는 압력은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대가이다.

. 정다면체 : 완전한 관계를 상징하는 정다면체는, 예를 들어 정사면체는 각각의 개체가 서로서에게서 같은 '거리(감)'를 유지하고, 좌우와 같은 '각도'를 유지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움직임은 멈추고 갈등도 질병도 불편도 없다. 그러나 이 관계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다시 깨어지고 완벽한 관계를 향한 '움직임'은 또 일어나게 된다

. 텐세그리티 : 텐세그리티는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고, 그것을 손상시키는 압력이 오면 '느낌'이 오게되며, 거기에서 원형으로 복원되는 것이 회복이다. 쉽게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복원력이고, 탄력성이다. 어떤 찌그러진 상황으로부터도 쉽게 복원하는 마음이 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찌그러진 상황의 느낌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 상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균형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 삶이란 : 상황이라는 바람을 맞아 '나'라는 돛이 펼쳐지며 바람에 저항과 끌림을 일으키고 거기서 오는 '힘'으로 '느낌'이 일어나며 그 느낌을 동력으로 배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존재계라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가 출렁임을 만들어내어 전 존재계가 '살아있게' 하는데 일조를 한다. 모든 존재는 이렇게 존재의 파도를 일으키니, 이 저항과 끌림은 존재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힘, 에너지'이다 그 가운데 균형과 조화를 중심삼아 움직이는 것이 중용이며, 살아있는 균형이다.

다음 페이지 부터는 여수 모임에서 진행된 사진들을 올려드리니 즐겁게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중



설명중



동그렇게 둘러 앉아 이야기중



텐세그리티 설명중



요트에 오르기 전 모습입니다



출발



출발 전 한 컷



지원님이 요트 설명 중



요트 그랑부트 앞에서 전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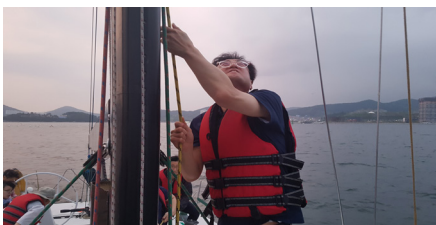
선장 지원님의 위엄



생애 처음 운전을 해본 이다님



텐세그리티의 일종인 돛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인님의 돛을 펼치는 고심의 얼굴

해인, 한생각님이 돛을 올리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월인님의 텐세그리티 설명



그랑부르에서 찍은 애플호



한 팀은 쾌속정을 타고 씩!



애플호에서 찍은 그랑부르호



요트 그랑부르 앞에서 전체 사진



밤바다로 가는 그랑부르



재석님이 배위에서 폭죽을 쏘고 있습니다



애플호에서 바라본 그랑부르의 불꽃놀이 1



애플호에서 바라본 그랑부르의 불꽃놀이 2



다음날 해변에서 잠시 해수욕을 마치고

****모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8월 11일) 관성 다루기™-감정, 텐세그리티 강의 안내

강사 : 월인

장소 : 미내사 함양 연수원

본강좌 : 2018년 8월 11일(토, 오후 2시) ~ 12일

(일, 오후 4시) / 1박 2일

참가자격: 깨어있기 기초심화 이수자

※ 모든 강좌 3일 전 접수마감

수강료 : 10만원

입금처 : 농협 053-02-185431 이원규 (카드결제 가능)

문의 : 02-747-2261

